

기독교 교육의 목적

기독교 교육을 통해 감동과 도전을 받으며 아래와 같이 변화 받도록 사람들과 믿음의 공동체를 초청합니다.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다.
-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고 살아간다.
-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성장하고 섬긴다.

기독교 교육의 기초: 교회 안에 기독교 교육을 위한 사역을 만든다.

¹⁷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¹⁸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¹⁹ 네가 계명을 아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²⁰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²¹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²²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²³ 예수께서 돌려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²⁴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틋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²⁵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²⁶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²⁷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17~27 (개역개정)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짓는 표정은 우리의 말보다도 훨씬 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나타냅니다. 스마트 폰과 여러 스크린이 범람하는 오늘날에는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반복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우정을 얻기 위하여 문명의 기기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낙심과 좌절을 가져다줍니다. 당신과 대화를 하는 그 사람이 당신의 눈을 응시하고 있다면, 당신은 받아들여지고 있고 인정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또한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그 사람의 중요성을 확인해 주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타인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같은 우리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 안에서 바라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시다. 우리는 이런 사랑의 실천을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춰 서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며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연령대이든지 또한 어떤 인생의 단계에 있든지, 우리는 모두 방해받지 않는 상태에서 온전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또 주의 깊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것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눈으로 나그네를 보고 또 반응할 것인지 보여줍니다. 어떤 남자가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의 친절에 끌려서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열망했습니다. 비록 그는 부자였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단순하게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면, 그는 자유롭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시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이 사람처럼 어떤 문제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사람을 보아라”(SeeAllthePeople)는 연합감리교회의 약동감 있는 운동으로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폭넓은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관계를 형성한 후,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 일부가 되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자료는 여러분이 기독교 교육 주간/주일을 계획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연회에 연락하셔서 기독교 교육 주간/주일을 위한 특별한 날짜가 정해져 있는지, 아울러 연회의 교육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주간/주일 특별헌금을 받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주간 행사는 새로운 배움과 봉사와 친구의 기회와 함께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 행사는 여러분 회중의 제자훈련 환경을 강조하고 경축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즐거운 마음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당신이 그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서로 간에, 더 나아가 교회를 넘어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인식될 수 있도록 당신이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의 부름 (시편 92편에 기초하여)

인도자: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중: 우리가 아침에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밤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합니다.

인도자: 가장 높으신 하나님, 음악과 곡조로 당신을 찬양합니다.

회중: 하나님, 주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인도자: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백향목처럼 건실하게 성장합니다.

회중: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할 것입니다.

성경구절

신명기 29:1~9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행한 일들은 너희가 모두 보았느니라”

시편 119:129~144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마가복음 10:17~27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히브리서 12:1~13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찬송

“Come, Let Us Use the Grace Divine,” *UMH* 606

“Let Us with a Joyful Mind,” *TFWS* 2012

“Love Divine, All Loves Excelling,” *UMH* 384

“O For a Thousand Tongues to Sing,” *UMH* 57

“Open My Eyes, That I May See,” *UMH* 454

“We All Are One in Mission,” *TFWS* 2243

“We Will Glorify the King of Kings,” *TFWS* 2087

UMH = United Methodist Hymnal TFWS = The Faith We Sing

존 웨슬리의 제자의 기도

“제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처럼 당신을 경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저의 영혼에 부어 주소서. 제가 마음과 생각과 혼과 힘을 다하여 당신을 믿고,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과 내 인생의 모든 날 동안 나로 당신의 거룩한 이름과 말씀에 경의를 표하고 진실로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 아멘.”

Prayers for Children, 1772 (quoted in *Wesley's Daily Prayers*, p. 119, edited by Donald E. Demaray, published by Bristol House, Ltd., 1998)

봉헌기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당신의 인자하심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밝게 빛납니다. 우리를 환영하시고 당신과 평생에 걸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슬퍼졌던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이 되곤 합니다. 우리로 매일 당신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타인을 위하여 값없이 주는 즐거움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헌금과 예물을 드리오니,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소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 교육자와 지도자와 배우는 자를 위한 헌신의 기도

인도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회중: 우리를 지혜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도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달콤하여 꿀보다 더합니다!

회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도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르침과 지도력의 은사를 받은 여자들과 남자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사들: 우리를 가르침의 사역으로 불러 주심을 감사하며, 이 사역에 우리를 헌신합니다.

인도자: 하나님,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고, 이들이 당신을 섬길 때 기쁨이 더하게 하소서.

성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믿음, 소망, 사랑이 계속해서 자라게 하소서.

인도자: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모아 교회를 이루게 하였고, 그곳에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어린이들과 학생들: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돕는 선생님들과 리더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두 함께: 지역사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신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축도

화평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지어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말할지어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매일 신뢰하며 나아갈지어다. 아멘.

시간 75~90분

목적

이 워크숍을 마칠 때, 참석자들은 다음 사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예수님이 사람들과 대화할 때 취하셨던 접근방법을 묘사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파악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 그들의 가르침과 삶에 기도의 실천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자료

- 이름표
- 마커펜, 크레용, 펜, 연필
- 몇 가지 색깔의 포스트잇 노트
- 오일 파스텔, 두꺼운 하얀 종이
- 갈색, 파란색, 검은색, 짙은 녹색 도화지
- 갱지/이젤 패드 혹은 화이트보드와 마커펜
- 렘브란트의 “예수의 초상” 그림 컬러 인쇄
- 배포용 자료
- 학습 센터에 관한 안내 복사물
- 간식(선택사항)
- 성경
-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The United Methodist Hymnal

준비

- 워크숍과 그 목적을 홍보한다.
- 참석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 준비 자료들을 수집한다.
- 아트 프로젝트와 기도 자세에 대한 지식 사항과 유인물을 양면 복사를 해서 준비한다.
- 전체 그룹 시간을 위해 원형으로 혹은 원형 테이블을 따라 원하는 대로 의자를 배치한다.
- 학습 센터들을 준비한다. 가능하면 각 센터는 테이블이나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참가자의 수가 많으면 필요한 크기로 조절하거나 센터마다 두 곳의 활동 장소를 준비한다.
- 소그룹 활동에 필요한 안내서, 유인물, 각종 준비물을 테이블 위에 준비해 둔다.
- “예수님의 애정 어린 바라봄”에 대해 반응하는 공간을 준비할 때, 예수님의 응시하는 시선이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는 장소에 “예수의 초상” 그림을 배치한다.

시작 (약 15~20분)

참가자들이 이름표에 이름을 적도록 한다. 다과나 음료가 준비되었다면 참가자들에게 권한 다. 사람들을 환영하면서 각자의 이름과 그들이 인도할 클래스나 소그룹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한다. (만약 그룹이 너무 크면 몇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소개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한다.)

참석자들이 마음을 모으는 찬송을 부르도록 초청한다. 앉은 자리에서 발을 바닥에 두고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평화로운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집중하도록 돕는다. 가사는 시편 5장 8절과 시편 4장 8절에 기초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선명하게 보여 주시도록 요청한다. 또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안내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인한다. 이 찬송은 찰스 웨슬리의 손자인 사무엘 세바스찬 웨슬리가 1861년에 작사했다.

마음을 모으는 찬송/기도:

“Lead Me, Lord”(연합감리교회 찬송가 *United Methodist Hymnal*, 473)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당신, 오직 당신이십니다.”

인도자가 먼저 찬양을 불러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준 다음, 그룹 멤버들이 인도자를 따라 그 찬양을 세 번 반복해서 부를 수 있도록 한다. 피아노 반주자의 반주와 함께 찬양할 수도 있다. 제자사역부에서 녹음한 피아노 반주는 다음의 웹페이지를 참조한다.

<http://www.umcdiscipleship.org/worship/piano-accompaniment-recordings>

제자사역부에서 제공하는 녹음은 대림절 주제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 이 주제로 분류되지 않은 곡들은 알파벳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다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ttp://www.gbod3.org/sorter/index3.html>

신앙 교육 사역의 리더로서 예배, 제자훈련, 봉사에 헌신하고 있는 것을 교회가 감사하고 있음을 참석자에게 알린다. 계속된 성경 공부, 경건 서적 읽기, 기도 생활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은 지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그들의 성장은 그들로부터 배우는 학생들과 그들 가족에게 축복이 될 것이며, 또한 리더들이 모여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경험하는 수준을 향상할 것이다.

성경 본문을 소개한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한 그들에게 반응하셨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봄으로 예수님을 좀 더 깊게 알기를 원한다는 말을 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낯선 사람을 어떻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지, 또한 그 사람이 들을 때 거북해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것인지를 보여주셨다. 마가복음 10장 17~27절을 큰 소리로 읽는다. (사람들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성경 페이지를 큰 소리로 말해준다.)

본문의 의미를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보도록 참석자들을 격려한다. 어떤 남자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것이 놀라운 일이었을까? 예수님의 친절에 끌려서 그 남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열망했다. 비록 그는 많은 소유를 하고 있었고 어려울 때부터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과연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없었다. 예수님은 이런 그를 판단하시기도하는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그다음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단순하게 신뢰하는 것이다. 만약 그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면, 그는 자유롭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문제로 힘들어할 때,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이런 일들도 하나님께는 가능함을 가르치신다.

“예수 기도”를 나누어 주고, 그룹 멤버들과 함께 간단하게 살펴본다. 그다음 “예수님의 애정 어린 바라봄” 유인물을 나누어 주고, 렘브란트의 “그리스도의 초상” 그림이 있는 장소를 알려준다. 이후 각자가 유인물에 적혀 있는 질문에 답변하도록 요청한다. 이제부터 체험할 학습활동을 설명한다. 학습 활동을 위해 소요될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말한다. 필요하면 참석자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간식과 음료를 들 수 있다.

학습 센터 활동 (약 35~45분 정도)

오일 파스텔로 색칠하기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찬송과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길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본다. 이와 같은 창조적인 표현을 위해서 당신은 평상시에 주로 사용하지 않는 손을 사용할 수 있다(평상시 글을 쓸 때 오른손을 사용하면 이번에는 왼손을 사용해 보고, 반대로 평상시 왼손을 사용하면, 이번에는 오른손을 사용해 본다). 두꺼운 하얀 종이와 오일 파스텔 색깔과 잘 대조될 수 있는 갈색, 파란색, 검은색, 녹색 같은 짙은 색깔의 도화지를 제공한다.

예수 기도

누가복음 18장 9~17절에 기초한 이 기독교 기도를 배우고 또 반응하기 위해 유인물을 사용한다.

예수님의 애정 어린 바라봄

예수님을 보여줄 의도로 그려진 렘브란트의 그림에 관한 생각을 적기 위해 유인물을 사용한다.

기도 자세

나이나 신체적 능력과 관계없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 자신들의 육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신경을 쓴다. 종종 “똥 기도”라고 불리는 기도 자세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에 우리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

오란스(혹은 AHNZ):

이것은 간구 기도 자세이다. 초대교회 이후 수 세기 동안 사용되었다. 서서 혹은 앉아서 팔을 팔꿈치 부분에서 구부리고 손을 펴서 올린 상태로 한동안 같은 자세를 취한다. 이것은 자신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 하는 자세이다. 기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람/사람들을 도우소서.”
“하나님 당신만이 최선의 길을 아십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무릎을 꿇거나 고개를 숙임:

마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한 경의를 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한다. 방석 위에서 한쪽 혹은 양쪽 무릎을 꿇을 수 있다. 아니면 간단히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감을 수 있다. 기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 저의 인생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저에게 인내심을 주소서.”
“예수님,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 당신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저를 도우소서.”

성령의 포용: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성령을 보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만큼 가까이 계시다. 기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 당신이 지금 바로 여기에 저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온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제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내소서.”

예수 안에 있는 승리:

가끔 우리는 정말 감사해서 그저 주님을 찬양해야만 할 때가 있다! 한쪽 또는 양쪽 팔을 귀 옆에 똑바로 세워서 좋은 소식에 대한 역동적인 기쁨의 자세를 취한다. 기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너무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만세!”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교회 주위의 지역 사회에서 사는, 당신이 만나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살피고 있는 어린이, 청년, 성인들을 상상해 보라. 갱지나 이젤 패드 위에 포스트잇 노트들을 붙이고, 각 노트 위에 학교, 식당, 상점, 공원, 도서관 등 근처에 있는 지역 이름을 적어라.

전체 그룹 나눔 시간 (약 15분)

모든 참석자가 전체 그룹 공간으로 다시 모이도록 한다. 그들이 학습 센터 활동 중에 얻게 된 통찰력이나 질문을 나누도록 한다. 그들의 말을 갱지나 화이트보드 위에 적는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센터로 가서 기도 제목들을 큰 소리로 기도한다. 모임에서 제출된 아이디어와 기도 제목들을 정리해서 돌아오는 주에 그룹 멤버들에게 보내줄 예정임을 통보한다.

폐회 (약 5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간구하면서 참석자들이 함께 찬송가를 부르도록 초청한다. 분별의 영에 관한 찬송으로는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소서”(Open My Eyes, That I May See, *UMH* 454)를 부른다. 활기찬 찬송으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Love Divine, All Loves Excelling, *UMH* 384)을 부른다.

다음 링크에서 찬송가들의 피아노 반주를 찾을 수 있다.
<http://www.gbod3.org/sorter/index3.html>

오늘 함께 경험한 것들에 대한 감사와 올해 우리들의 신앙 교육과 제자 사역을 통해 지역사회의 어린이들과 청년들과 성인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는 기도로 마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선행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어른들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겸손하고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하셨다.

⁹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¹⁰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¹¹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¹²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¹³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¹⁴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¹⁵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¹⁶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¹⁷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9~17

초대교회 시대에 개인 기도는 이러한 예수님이 주신 비유를 토대로 하여 발전되었다. 이러한 기도의 한 유형을 보면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내포하고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는 묵상 중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의도되었다. 또한, 이것은 단순 반복적인 일을 그리스도인의 성찰의 시간으로 바꾸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이 기도의 단어에 집중하는 방법은 “손끝 기도”로 기도하는 것이다. 손을 다리 위에 놓고 손바닥은 위를 향하게 하며 앉는다. 한 번에 한 단어씩 기도할 때마다 엄지에 각 손가락을 가법계 두드린다.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향하여 이동하는 것을 상징하듯 왼손으로 시작하여 오른손으로 움직인다.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변형하여 실행할 수 있다.

“주”라고 부르면서 왼쪽 엄지손가락을 왼쪽 집게손가락에 두드리며 기도한다. 다시 “예수”라고 부르며 두 손가락을 부딪치며 기도한다. “그리스도”라고 기도하며 엄지와 가운데손가락을 부딪친다. “하나님의”라고 기도하며 넷째 손가락과 엄지를, “아들”이라 기도하며 엄지를 새끼손가락과 부딪친다. 그다음 이번에는 오른손에 집중한다. “구세주시여”라고 기도하며 오른손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나”라고 기도하며 넷째 손가락과 엄지를 함께 두드린다. “에게”라고 기도하며 엄지와 가운데손가락을 함께 두드리고, “자비를”이라 하며 엄지와 둘째 손가락을 두드리고, 다시 같은 손가락으로 “베푸소서”라고 기도한다.

나중에 나온 예수 기도는 마지막에 “이 죄인에게”라는 말을 추가했다. 이 말을 손끝 기도에 포함시키려면, “나”, “에게”를 “이”, “죄인에게”라고 바꾸면 된다.

예수 기도를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걷거나 뛰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오른발부터 시작할지 아니면 왼발부터 시작할지 결정한다. 한 발씩 내디딜 때마다 한 단어를 기도한다. 당신의 육체적 활동 수준에 맞추어 숨쉬기와 기도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멈춤의 시간을 갖는다. 예를 들면, 세 발짝을 걸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도한 후, 다음 발짝에는 침묵하며 호흡한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시여”까지 기도하며 걸은 후, 그다음 걸음에서는 침묵하며 호흡한다. 마지막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부분은 한걸음에 한 음절씩 기도한다. “이 죄인에게”라는 말을 넣고 싶으면, “나에게”라는 말 대신에 “이 죄인에게”라고 하면 된다.

아래의 질문에 관해 쓰거나 그려서 답변한다.

1. 예수 기도에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명칭과 역할이 포함되어 있다: 주(인도자), 예수(인성), 그리스도(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아들(어린아이), 하나님의(신성), 구세주(구출자, 용서하는 자). 이 중 어떤 묘사가 당신의 마음에 가장 와 닿는가? 그것에 대해 적든지 아니면 상징으로 그린다.
2. 자비를 베푸는 것을 생각할 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3. 후기에 만들어진 예수 기도에 나오는 “이 죄인”이라는 표현이 당신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는가?
4. 지금 그리고 이번 주 동안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것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모습이셨는지 상상이 되나요?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했던 사랑과 관심의 감정을 생각해 보기 위해 렘브란트의 “그리스도의 초상” 그림 복사본을 사용한다. 이 그림은 여러 가지 감정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얼굴을 상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 렘브란트가 그린 일련의 그림 중 하나이다. 렘브란트는 암스테르담에 있는 그의 이웃에 사는 한 유대인을 모델로 고용해서 여러 작품을 그렸다. 이 그림들은 렘브란트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가 재정 위기로 소유물들을 급히 경매에 부칠 때도 그 그림 중 몇 점은 여전히 그의 침실에 걸려 있었다.

다음의 사이트에서 그림을 볼 수 있다.

[https://en.wikipedia.org/wiki/Head_of_Christ_\(Rembrandt\)](https://en.wikipedia.org/wiki/Head_of_Christ_(Rembrandt))

묵상 질문들

1. 렘브란트 그림에 대한 당신의 첫 반응은 어땠는가?
2. 이 작품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을 때 무엇을 주목하게 되었나?
3. 당신이 마음에 품고 있던 예수님의 이미지와 비슷하게 보였나 아니면 달라 보였나?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가?
4. 한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지게 되는 표정을 당신은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
5. 당신의 얼굴이 예수님의 애정 어린 바라봄을 나타내거나 반영하도록 해본다. 어떤 느낌이 드는가?
6. 이러한 경험 중 무엇을 간직하기를 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각자는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 수지 피치 포스터는 제2차 세계대전 전 10년 동안 한국에서 활동했던 감리교 선교사였다. 그녀는 제자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개인적 헌신의 약속을 지켰다. “나는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품고서 매일 좀 더 그 이미지를 닮아 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Living Your Heart's Desire: God's Call and Your Vocation by Gregory S. Clapper, Upper Room Books, 2005, p. 120). 이러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의도적으로 시간을 떼어 성경을 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항상 시간을 할애하시는 분이시다.

아래의 자료들은 다음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https://www.seeallthepeople.org/resources-downloads>

- *Developing a Discipleship System: A Guide for Congregations* (Spanish and Korean translations)
의도적인 제자화 시스템 개발을 위한 교회 지침서 (스페인어와 한국어 번역본)
- *Engaging Your Community: A Guide to Seeing All the People*
지역 사회에 참여하기: 모든 사람을 바라보기 위한 지침서
- *Developing an Intentional Discipleship System for Children*
어린이들을 위한 의도적인 제자화 시스템 개발
- *Developing an Intentional Discipleship System: A Guide for Youth Ministry*
의도적 제자화 시스템 개발: 청소년 사역을 위한 지침서
- *Devoted: Discipleship Around the Globe*
헌신: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자화
- *How to Start Small Groups*
La Formacion de Grupos Pequenos
소그룹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 *Discovering Your Spiritual Gifts*
Descubra Sus Dones Espirituales
당신의 영적 은사를 발견하라
- *Prayer Practices for Disciples: Creating a Life with God*
제자들을 위한 기도 실습: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창조하기
- *Raising Generous Disciples: Shifting Our Stewardship Focus*
관대한 제자들을 세우라: 청지기직 초점의 전환
- *Sharing Our Faith & Reaching Out Beyond Our Walls*
신앙의 나눔과 벽을 넘어선 전도

다음의 자료들은 Upper Room 온라인 서점이나 Cokesbury 혹은 Amazon에서 구매할 수 있다.

- *Passing It On: How to Nurture Your Children's Faith Season by Season* by Kara Lassen Oliver
믿음의 전수: 시기마다 당신 아이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
- *Scrambled Starts: Family Prayers for Morning, Bedtime, and Everything In-Between* by Jenny Youngman
허둥대는 출발: 아침과 취침 전 그리고 그사이에 필요한 가족 기도

기독교 교육 주간은 연합감리교회 총회가 인준하지만, 교육 주간의 실행은 각 연회가 주관한다. 소속 연회 사무실에 연락하여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졌는지 확인하기 바란다.

Produced by the Christian education staff of Discipleship Ministries.

Scripture quotations, unless otherwise indicated, are from th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 1989 by the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 2018 by Discipleship Ministrie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reproduce this leaflet for use in local United Methodist congregations.

Funded through World Service apportionment giving by United Methodist congregations.